

## 가인과 아벨

<sup>1</sup>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  
 때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sup>2</sup>그가 또 가인  
 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sup>3</sup>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  
 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  
 호와께 드렸고 <sup>4</sup>아벨은 자기도 양  
 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  
 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  
 은 받으셨으나 <sup>5</sup>가인과 그의 제물  
 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  
 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sup>6</sup>여호와  
 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  
 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  
 함은 어찌 됨이나 <sup>7</sup>네가 선을 행하  
 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  
 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앞  
 드러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sup>8</sup>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  
 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 (창4:1-8)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창세기 가인

과 아벨 본문입니다. 저는 소위 모  
 태신앙으로 지난 육십여년 살아오면  
 서 이 창세기 앞부분을 읽을 때마다  
 늘 마음이 좀 착잡했습니다. 왜 인  
 류의 시작이 처음부터 이렇게 형제  
 간 살인으로 시작되는가... 그 부모  
 인 아담과 하와는 첫 만남 때,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창2:23) 하면서 얼핏 듣기에 아주  
 아름다운 문학 작품 한 문장 같은  
 고백으로 시작하신 분들이었는데 그  
 자녀 교육이 대체 어땠길래 바로 자  
 녀 세대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  
 나는가 하면서 말이지요...

저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도 같거나 비슷한 생각들을 하  
 시지 싶습니다. 창세기 앞 부분이  
 문자 그대로 실제 일어난 일이라 믿  
 고 읽게 되면 그 누구라도 달리 생  
 각할 여지가 없으니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아브라함  
 의 등장 전까지는 그 실제 존재했던  
 기간이 얼마였는지는 알 수 없는 장  
 구한 세월 생겨났다 사라진 수많은  
 교회들의 이야기를 정말 기가 막히  
 게 아름답고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으  
 로 요약한 것이어서, 이걸 문자 그  
 대로 읽게 되면 년센스에 가까운 해  
 석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슷  
 한 스토리텔링으로 존 번연의 천로

‘가인과 아벨’

역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 크리스천, 전도사, 유연, 속물도사, 해설자, 순진, 나태, 시건방, 믿음 등 그 등장인물들이 실체가 아닌 무언가를 의인화시킨 것처럼 말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창세기는 주님의 말씀이지만, 천로역정은 인간의 작품이라는 것으로, 전자인 말씀에는 신(神)의 입김, 곧 아케이나(*arcana*, 秘義, *internal meaning*, 속뜻)가 들어있지만 후자인 인간의 작품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글에는 아케이나가 없으며,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주님의 입김, 곧 아케이나로 읽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가리켜 ‘일점일획’(一點一劃, 마5:18)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도 말씀이 신(神)의 기운, 곧 아케이나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천국 천사들은 말씀을 아케이나로 읽어 주님과 결합합니다.

우리는 아직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아케이나를 온전히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아케이나는 영적이요, 내적(內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님의 자비로 이제 이 아케이나에 대해 어느 정도 지상의 언어로 기술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말씀 앞에 주님

의 빛 비추심을 구하며 힘써 살피면 주님은 그 사람의 역량, 곧 어느 정도 그 내면이 열렸는가에 따라 그에 맞춰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깨달아 소화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는 제가 지난 삼년간 해오고 있는 것이며, 갈수록 점점 더 넓고 깊게, 그러니까 깨달음이 깊어지고, 깊어진 만큼 더욱 내적 시야가 넓어지고 하면서 둘이 상승작용을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노센스, 곧 천진난만, 순진무구를 내내 꼭 붙들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칫 세속적이 되는 순간, 마치 공든탑이 무너져 내리듯 무너져 그 무너진 것을 복구하는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치 모세가 주님이 만들어주신 첫 돌판을 깨뜨린 후, 두 번째 돌판은 자기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올라야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한 가지, 그럼 왜 여태 주님은 인류에게 말씀의 속뜻을 감추셨는가, 진작 알려주셨으면 이렇게 엉뚱한 해석들을 하며 엇나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현재 수준의 제 답은,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역량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량이 그 정도였기 때

‘가인과 아벨’

문이 아닐까... 역량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 드는 비유가 좀 그렇긴 한데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마7:6)

하심과 같습니다.

영적 역량이란,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천국 좋은 건 또 알아서 심지어 악인들조차도 사후 다들 천국에 가고 싶어한다는 이야기로 이해를 좀 도울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모든 유익한 것은 다 허락하시는 분이셔서 그 천국 방문, 천국 견학을 허락하시는데, 정작 그들은 천국의 가장 낮은 곳, 낙원이라는 곳의 입구조차도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곳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들은 마치 오징어가 불에 구워지듯 온몸이 뒤틀리며 상상을 초월한 고통을 겪게 되어 ‘아이고, 나 죽소!’들 하고는 얼른 본연의 자리, 곧 지옥을 향해 도망치고는 그곳에서 편안해 하며, ‘다시는, 다시는 내 가나 봐라’ 한답니다. 이는 그 내면 질서가 천국과 정반대로 형성된 사람들이 겪는 경험으로, 천국을 감당할 역량이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이 과욕을 부린 결과인 것입니다.

역량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언 말씀 하나 더 드리면, 그러므로 천국은 무슨 라이선스를 받아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살 수 있는지, 천국에서 머무르며, 지낼 수 있는지는 그 역량이 갖춰져 있어야만 가능한 그런 곳이라는 말씀이지요. 천국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은 곧 주님의 신성입니다. 천국은 주님의 신성으로 가득찬 나라이기 때문인데요, 생전에 주님의 신성, 곧 주님의 선과 진리 실천에 힘써 자신의 속 사람이 주님과 닮도록 힘쓴, 주님의 신성이 속 사람 안에 쌓이도록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 이런 분들은 천국 생활이 가능하셔서 얼마든지 천국에 입국, 마치 본향에 온듯한 행복을 영원히 누리시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주님은 인류에게 그동안 말씀의 속뜻을 계시하지 않으신 게 아닌가, 주님은 현 창세기를 비롯, 모세오경을 모세 때에야 비로소 주셨습니다. 즉 홍수 전 태고교회와 홍수 후 고대교회까지만 해도 굳이 지상 인간의 언어로 된 말씀이 아니어도 인류는 주님과 연결될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 전 벨렉의 때 이후

‘가인과 아벨’

로 그 연결조차 거의 희미해져 결국 모세 때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할 수 없이 지상의 언어로 기록하신 말씀으로밖에는 이 연결을 유지하실 수 없게 되었다 스베덴보리의 어느 글에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다만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여 어린 아이처럼 주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곧이 말씀의 속뜻, 아케이나 없어도 몰라도 얼마든지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다 천국 가실 수 있습니다. 아케이나 몰랐다고, 말씀을 속뜻으로 읽을 줄 몰랐다고 무조건 지옥가는 거 아닙니다. 속뜻, 몰라도 됩니다. 다만 말씀에 대한 보다 더 정확한 이해를 통해 지상에서도 천국 천사들처럼 주님 위한 온전한 쓰임새의 삶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케이나를 통해 주님과 결합, 주님이 직접 통치하실 새 교회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적극 권합니다. 부디 꼭이 아케이나의 삶 살게 되시기를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가 생각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4장은 태고교회 가운데 일어

난 이단들 이야기와 그 끝에 일어난, ‘에노스’(4:26)라고 하는 새 교회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단이란 오늘날 우리처럼 무슨 교단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 이단심판위원회 같은 데서 이단 판정을 내리는 그런 이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질서에 어긋난 교리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태고교회 원조, 곧 오리지널 태고교회를 말합니다. 완전, 온전한 교회, 천적 인간이라고도 하며, 안식 상태에 도달한 교회입니다. 인류 역사상 주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교회이지요. 이때는 천사들도 이 지상의 교회와 자유롭게 교제하였으며, 주님도 친히 오셔서 가르치실 수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태고교회가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온전한 내적 교회였기 때문이며, 그래서 그들은 천사들이 누리는 퍼셉션(*perception*, 지각, 통찰)을 지상에서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퍼셉션은 오늘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놀라운 영적 통찰력 내지는 재능, 기운 등등인데요, 도저히 지상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천국의 어떤 특성입니다.

주님의 신성, 곧 주님의 선과 진리를 직관적으로 아는 능력이며, 그러므로 상대방의 말 한 마디를 듣고도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꿰뚫는 능력이요,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아주 살짝만 말을 달리 해도 나중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그대로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이 퍼셉션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주님의 뜻 온전히 받드는 일에 흔들림이 없는 것이고, 그렇게 지혜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태고교회는 이런 퍼셉션이 있어서 주님과 다이렉트로 연결될 수 있었습시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상실하여 인간의 언어인 말씀이 있어야만 연결 및 결합이 가능하지만 태고교회는 굳이 지상 언어로 기록된 말씀이 필요하지 않았습시다. 마치 천사들이 굳이 말씀을 봐야만 주님 뜻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 지 얼마든지 늘 직관적으로 주님 뜻 안에 있는 것처럼 말입시다. 태고교회는 이런 교회였습시다.

교회의 자녀는 신앙과 체어리티(*charity*)입시다. 교회를 아담과 하와, 곧 선과 진리, 진리와 선의 결합으로 의인화하였을 때, 그 자녀들은 각각 신앙과 체어리티, 곧 가인과 아벨로 의인화한 것입니다.

체어리티는 기부, 자선, 이웃 사랑 등 여러 의미와 뉘앙스가 있어 굳이 번역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적습시다. 주님 말씀하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마19:19)가 바로 체어리티입시다.

아래는 체어리티의 하이라이트입시다.

<sup>33</sup>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리라 <sup>34</sup>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sup>35</sup>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sup>36</sup>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sup>37</sup>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sup>38</sup>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sup>39</sup>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sup>40</sup>임금이 대답

창4:1-8, AC.338-369

### ‘가인과 아벨’

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25:33-40)

참 목자란 그 양들을 체어리티의 선으로 인도하고 가르치는 자이며, 마찬가지로 참된 양이란 체어리티의 선으로 인도 받는 것과 가르침 받는 것을 기뻐하며 따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고보면 의외로 거짓 목자, 거짓 양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순전했던 태고교회 안에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사랑과 신앙을 서로 분리하는 사람들인데요, 이름하여 ‘가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사랑과 신앙을 분리한다, 사랑에서 신앙을 따로 떼어놓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랑 따로, 신앙 따로... 이게 가능한 건가요?

태고교회 사람들은 사실은 신앙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주님 사랑 안에 이미 태생적으로 다 들어있기 때문이지요. 정신지체를 가지신 분들이나 심지어 갓난아이조차도 사랑은 압니다. 지금 자기를 케어하는 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를 본능적으로 알지요. 사랑 안에 모든 게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사랑 하나로 충분한 겁니다.

신앙, 참 신앙이란 이런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분을 나도 사랑하고, 그분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알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사랑, 참 신앙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앙한다 할 때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주님을 신앙은 하고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어야 천당 간다는 건 어떻게 알고는 오직 천당 가기 위한 일종의 보험으로, 신앙 생활이라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지요. 이들은 무슨 선을 행할 때, 즉 이웃에게 체어리티를 행할 때도 누가 볼 때라든지, 카메라가 찍고 있을 때, 혹은 그 대상이 대통령이나 주님처럼 높은 분일 때라야 합니다.

아까 양과 염소 본문의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sup>41</sup>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

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sup>42</sup>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sup>43</sup>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sup>44</sup>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sup>45</sup>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sup>46</sup>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25:41-46)

이런 게 사랑 따로, 신앙 따로이며, 이런 게 이단이며, 이런 게 '가인'인 것입니다.

이런 건 '가인'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주님의 신성 중 누구는 선, 곧 사랑에 더 끌리는가 하면, 누구는 진리, 곧 신앙에 더 끌릴 수 있습니

다. 전자에 더 끌리는 사람들은 천적 천국을, 후자에 더 끌리는 사람들은 영적 천국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다르더라도 둘은 천국, 곧 기본적으로 주님의 신성을 함유한 사람들로서 사랑과 신앙 중 어느 것이 더 주도적이냐의 차이로 따로 따로인 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대부분의 우리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은 가인이 아닙니다. 다만 좀더 체어리티, 곧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 부끄러움, 죄책감 등은 있을지 몰라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JMS 등 자기들만 소위 사랑(?)하고, 교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돌처럼 굳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저들 이단은 진짜 이단들입니다. 저들의 사랑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며, 저들의 신앙의 대상은 주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구원 받고자 하는 동기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들은 참으로 사랑과 신앙을 분리한 사람들이며, 진정한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다른 때도 아닌 태고교회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 놀랍기 그지 없으며, 그래서 더더욱 오늘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천적

창4:1-8, AC.338-369

‘가인과 아벨’

인간인 태고교회 때도 일어났거든  
하물며 오늘 우리는... 하고 말이지  
요.

그러므로 이런 자들의 예배를 주님이  
어떻게 열납하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주님은 오직 아벨의 제사, 예배  
라야만 열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배가 주께 열  
납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나의 삶  
이 예배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하신다면, 아까 주님 말씀하신 ‘지  
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우리도 어  
서 뭔가를 실천하면서 주님께 나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거 도와주면 나는 어떻게 생  
활하지? 다음달 내 생활비는... 이런  
게 걱정되십니까?

주님 말씀입니다.

<sup>25</sup>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  
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sup>26</sup>공중  
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  
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  
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

지 아니하나 <sup>27</sup>너희 중에 누가 염  
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sup>28</sup>또 너희가 어찌 의  
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  
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  
니하느니라 <sup>29</sup>그러나 내가 너희에  
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  
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sup>30</sup>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  
며 너희일까보나 믿음이 작은 자  
들아 <sup>31</sup>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  
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sup>32</sup>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  
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  
니라 <sup>33</sup>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  
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리라 <sup>34</sup>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마6:25-34)

주님을 믿으시고, 염려마시고 체어  
리티 실천할 기회가 오면 바로 붙드  
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체어리티의 삶을 외면할 때,



즉 선을 행할 기회를 애써 외면할 때, 그때는 우리가 가인의 기운에 노출되는 때이며, 이때 지옥의 문이 열려 악령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대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앞드려 있느니라'의 의미입니다. 아주아주 위험한 상황이지요. 이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뒤로 물러나는 것, 곧 얼른 체어리티를 붙잡는 것입니다. 얼른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의 의미입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아멘, 할렐루야!

가인의 사람들은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체어리티와 아주 결별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사랑과 분리된 신앙, 즉 가인의 교리가 아벨로 표현된 체어리티를 완전히 파괴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곧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내면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얼른 돌이켜 체어리티를, 아벨을, 주님을 향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022-06-26(D1)  
한결같은교회 변일국 목사